

# 2018년 고1 때부터 통합과학·사회 배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고교 주요 사항**  
고교 필수이수단위 배당 기준

현행	개정안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단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단위	공동과목 (단위)
기초	국어	10	국어	10	국어(8)	
	수학	10	수학	10	수학(8)	
	영어	10	영어	10	영어(8)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0	사회(역사·도덕 포함)	10	통합사회(8)	
	과학	10	과학	12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체육·예술	체육	10	체육	10	-	
	예술(음악/미술)	10	예술(음악/미술)	10	-	
생활교양	기술·가정/제외과목/한문/교양	16	기술·가정/제외과목/한문/교양	16		
소계		86			94	
학교교육과정		94	학교교육과정		9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단위		204	총 이수단위		204	

**고교 보통교과 교과목 구성**

교과 영역	교과(군)	공동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의 세계,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문학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분·확률과 통계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I, 영어 II,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지문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영어문법학, 진로영어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사, 세계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문리, 여행사, 사회문제 탐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탐구
	예술(음악/미술)	음악, 미술, 연극		합창·합주,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창작, 미술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경영일반, 생명과학,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
	제외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그리스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논술			

## 교육부, 통합교육 총론 주요사항 발표

### ‘공통과목’서 기초 소양 쌓고 적성·진로따라 ‘선택과목’ 이수

### 고교 인문학적 소양 향상 ‘고전읽기’ ‘과학사’ 과목 신설 검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도부터 고교에서 문·이과 계열 구분없이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통과목으로 배운다.

특히 사회, 과학 교과에 경우 사회·과학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대주제’(Big Idea) 중심으로 기술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공통과목으로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24일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내년 9월 최종 확정·고시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2017학년도부터, 나머지는 2018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으로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수능을 보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고, 구체적인 수능 개편안은 2017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은 기초소양을 기르는 ‘공통과목’과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이 모두 선택과목이었다면 새 교육과정에서는 고교생이 필수로 들어야 할 ‘공통과목’이 모두 7개 도입된다.

공통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과목은 8단위로, 한국사는 6단위로 신설된다. 과학 교과에 실험 중심의 2단위짜리 ‘과학탐구실험’도 공통과목이다.

공통과목은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고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1학년 때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사회·과학 교과 영역의 내용을 포괄적인 ‘대주제’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사는 ‘탐구 영역’의 사회교과에서 분리돼 ‘기초 영역’에 편성된다. 기초 영역의 국어·수학·영어·한국사 등 4개 과목은 총 이수단위의 절반(90

단위)를 넘을 수 없다.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한 공통과목과 한국사는 수능의 출제 대상이 된다.

선택과목은 고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수능 선택과목이 될 수 있는 ‘일반선택’과 교과별 심화학습, 교과 융합 학습, 진로안내 학습 등이 가능한 ‘진로선택’으로 구분된다.

일반선택 과목은 기본 이수단위가 5단위이고 2단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진로선택의 이수단위는 2~6단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고교 3년간 필수로 이수해야 할 기본 단위는 과학 교과가 2단위 늘어나고 한국사가 6단위 신설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 체제와 같다.

소프트웨어교육과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주 1시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내용으로 개편된 ‘실과’ 수업을 듣고, 중학교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전환된 ‘정보’ 교과를 1년간 주 1시간씩 배워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심화선택 과목 중 하나인 ‘정보’가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돼 선택의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교육은 초등학교 1~2학년에 ‘안전생활’ 교과 신설되고, 나머지 학년에서는 체육, 기술·가정, 보건 등 관련 교과에 안전단원이 마련된다.

초등 1~2학년 교육과정은 누리과정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수업시수가 주 1시간 늘어난다. 늘어난 시간에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초등학교에서 적정 한자 수가 400~500자 가량으로 명시되고 교과서에 한자가 병기된다.

고교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자 문학이 이른 우주에서 감성과 소통 중심으로 바뀌고, ‘고전 읽기’, ‘고전과 윤리’, ‘과학사’ 등의 과목 신설도 검토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2    해질 07:03  
해짐 18:26    달짐 18:53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  
발해만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기장지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7/28	보성	구름많음	16/25
목포	구름많음	18/25	순천	구름많음	18/26
여수	구름많음	20/25	영광	구름많음	16/27
나주	구름많음	15/28	진도	구름많음	18/26
완도	구름많음	19/26	전주	맑음	16/27
구례	구름많음	17/26	군산	맑음	15/25
강진	구름많음	17/26	남원	맑음	15/26
해남	구름많음	17/27	옥산도	구름많음	20/24
장성	구름많음	15/27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	1.0~1.5	북서	0.5~1.5
	면바다	북서	1.5~2.5	북서	1.0~2.0
남해	앞바다	북서	1.0~2.0	북서	0.5~1.5
	면바다	북서	2.0~3.0	북서	1.5~2.5

### ◇생활지수

식중독	58
운동	50
빨래	60

### ◇주간 날씨

26(금)	27(토)	18(일)	29(월)	30(화)	10/1(수)	2(목)
☀	☀	☀	☀	☀	☀	☀
18/28	16/26	15/26	16/26	14/24	13/24	13/25

## 통합과목으로만 수능 출제

## 선택과목은 학생부로 반영

### 수능 어떻게 바뀌나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의 큰 그림을 발표했지만, 이와 연계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 방향은 내놓지 않아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통과목으로만 수능 출제=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과학탐구 등 5개 영역을 문·이과 구분없이 공통과목으로만 모든 수험생이 보는 ‘공통수능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정위원회가 지난 12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연구안에는 ‘공통과목’을 수능 시험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럴 경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또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체제 개선안 중 중요하게 고려했던 ‘문·이과 완전 융합안’과도 일치한다.

교육부는 현재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공통과목 출제 공통수능안은 선택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의 수업이 공통과목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이 문·이과가 다르다는 현실과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대입에서 선택과목 부분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선택과목’ 얼마나 포함될까=문·이과 계열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대학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교육부는 이날 일반선택 과목을 설명하면서 “선택 수능에 해당하는 교과의 경우 수능 대상 과목으로 권장한다”고 언급,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뒀다.

개정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방안은 5개 영역을 공통수능으로 보면서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부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포함하는 안과 국·수·영 등 3개 영역은 공통수능으로, 사탐·과탐은 선택수능을 보는 안 두 가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짚은 교육과정 개편, 현장 피로감”... “새 교육과정 적응도 안끝나 혼란”

### 양대 교원단체 반응

교원단체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피로감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대해 “짚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현장 피로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학교 현장의 최소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문·이과 통합은 현장 교사는 물론, 학생의 공감대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임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이란 단어 대신 ‘균형’을 넣어 ‘문·이과 균형 교육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현장교사가 배제된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편은 또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정권 입맛 따라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새 교육과정 적응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교육과정 바꾸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

동안 교사와 학생들은 2007년, 2009년, 2011년 연이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혼란과 피로감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과학·통합사회 국정화는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전략적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거쳐 지속가능한 ‘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가칭’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준법감시심의의필(안제14008호) www.suhyup-bank.com

# 무배당 SH사랑海 저축공제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수익 올리고 목적자금 마련

무배당 SH사랑海 저축공제는 단기·장기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공제입니다.

이 공제계좌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좌지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동계좌는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특별법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SH수협보험**